

# 06

## 상상과 추상의 회화

- 1 다양한 상상으로 일상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 2 추상화의 다양한 표현 방법과 가치를 이해하고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  
인물과 동물이  
하늘을 나는 모습으로  
표현된 이유는  
무엇일까?  
”



▲ 사갈(Chagall, Marc(러시아→프랑스/1887~1985) 에펠 탑의 신랑 신부(캔버스에 유채/150×136.5cm/1938년)

### 상상과 추상의 세계

‘나에게 하늘을 나는 초능력이 있다면?’과 같은 상상을 해 보거나, 즐겁거나 괴로운 감정을 색으로 표현해 본 적이 있는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해서 그리고 감정과 직관으로 내면에 떠오르는 것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쳐 상상과 추상의 세계로 떠나 보자.



▶ 이우환(한국/1936~) 점으로부터 (캔버스에 안료/117×117cm/1976년)

## 상상의 나라를 펼쳐 보!

우리는 상상을 하면서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꿈속에서의 경험과 현실을 넘어선 상상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한다. 다양한 상상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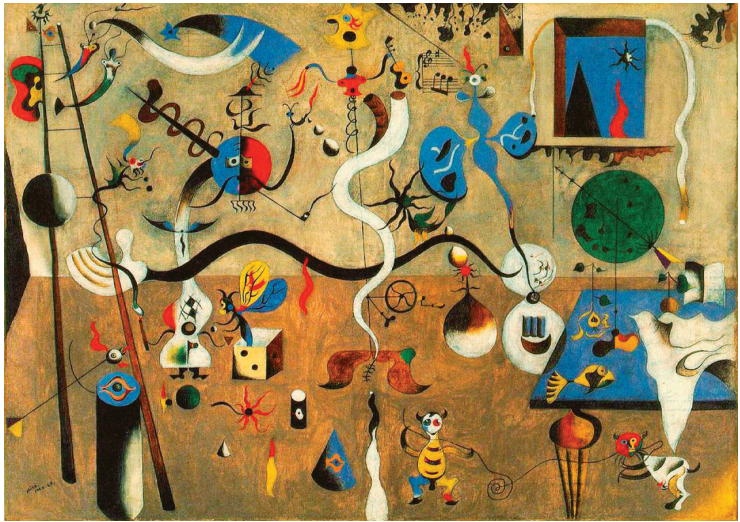
◀ 홍정진(학생 작품) 신비한 문(종이에 수채, 콜라주/27×39cm) 사진을 오려 붙여 꿈의 한 장면을 나타냈다.

◀ 루소(Rousseau, Henri/프랑스/1844~1910) 꿈(캔버스에 유채/204×298cm/1910년) 자신이 꿈꾸고 상상한 원시림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상상 속 동물을 그려 보자!



▶ 권나예(학생 작품) 상상 속 동물(종이에 색연필, 수채/39×27cm) 동물의 모습과 특징을 결합하여 새로운 상상의 동물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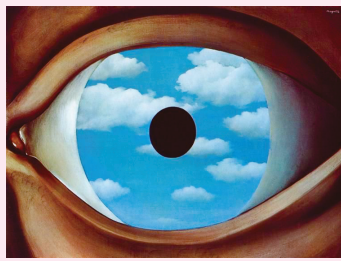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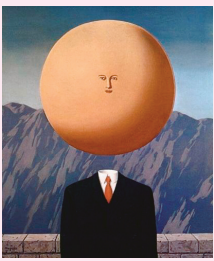


▲ 미로(Miró, Joan/에스파냐/1893~1983) 어릿광대의 사육제(캔버스에 유채/66×93cm/1925년) 이성의 영향을 배제하고 아무런 계획 없이 손 가는 대로 그리는 자동기술법을 사용하였다.

## 알고 가기 초현실주의의 데페이즈망 기법



초현실주의 미술은 꿈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등을 다루는 현실을 초월한 미술 경향이다. 기존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미술과는 달리 실험적 기법과 주제를 다루면서 대상을 이질적이고 낯설게 표현하여 기이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마그리트는 초현실주의의 대표 화가로, 서로 관계없는 대상을 결합하는 데페이즈망 기법을 주로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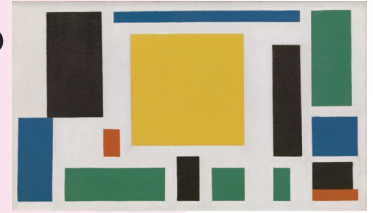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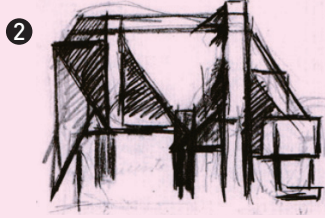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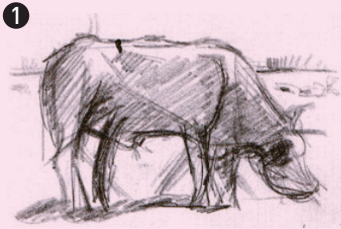
◀ 마그리트(Magritte, René/벨기에/1898~1967) (좌) 천리안(캔버스에 유채/54×65cm/1936년) (중앙) 살아 있는 예술(캔버스에 유채/54×65cm/1967년) (우) 잘못된 거울(캔버스에 유채/54×81cm/1928년)

##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다

추상화는 사물을 보이는 대로 나타내지 않고 점, 선, 면, 색채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림이다. 다양한 추상화 표현 방법을 살펴보고 나의 내면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자.

### ● 대상의 단순화

실제 대상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핵심 부분만을 간략하게 나타내면 대상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



▲ 반두스뷔르흐(Van Doesburg, Theo/네덜란드/1883~1931) ① 구성(암소)(종이에 연필/11.7×15.9cm/1917년) ② 구성(암소)(종이에 연필/11.7×15.9cm/1917년) ③ 구성 VIII(암소) 습작(캔버스에 유채/37.5×63.5cm/1918년) ④ 구성 VIII(암소)(캔버스에 유채/37.5×63.5cm/19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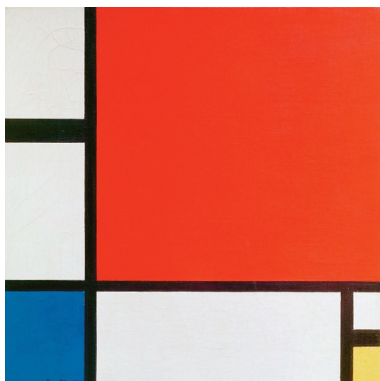
### ● 기하학적 추상

조형 원리를 탐구하여 순수하고 이상적인 조형 질서를 표현하는 추상화이다. 화면을 수직, 수평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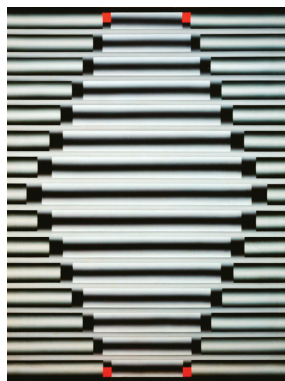


▲ 스텔라(Stella, Frank/미국/1936~) 하란 II(컬러 필드 페인팅/304.8×609.6cm/1967년)

색채와 구성만으로도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어요.



▲ 몬드리안(Mondrian, Piet Cornelis/네덜란드/1872~1944) 빨강, 파랑과 노랑의 구성 II(캔버스에 유채/59.5×59.5cm/1930년) 우주의 진리, 근원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수직, 수평, 삼원색과 무채색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 이승조(한국/1941~1990) 핵(核)(캔버스에 유채/195×161cm/1970년) 1960년대 산업화와 과학 기술의 발달을 수직, 수평의 금속성 원통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 ● 서정적 추상

작가의 내면, 주관과 직관에 따라 표현하는 추상화이다. 즉흥적이고 표현주의적인 화면 구성이 특징이다.



▲ 칸딘스키(Kandinsky, Wassily/러시아→프랑스/1866~1944) 즉흥 연주(캔버스에 유화/130.7×130.7cm/1913년)



▲ 김은서 외 7명(학생 작품) 캐리비언의 해적(폼 보드에 한지, 색지를 오려 붙여 표현/60×90cm)

음악을 듣고 느껴지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자.



## 다양한 추상 표현 기법

뿌리기, 밀어내기, 회전시키기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추상 작품을 제작해 보자.

### ◎ 밀어내기



▶ **히스트(Hirst, Damien/영국/1965~)** 아름답게 미끄러지듯 치솟는 광란의 그림 오락실(캔버스에 금속 페인트/지름213cm/2007년) 종이에 물감을 뿌린 뒤 회전판을 돌려 자유로운 형상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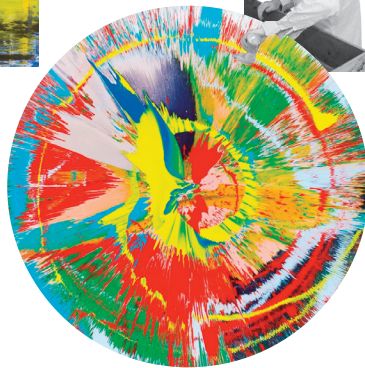
◀ **리히터(Richter, Gerhard/독일/1932~)** 추상 회화(캔버스에 유성 페인트/230×204.8cm/1994년) 스퀘어지에 물감을 묻힌 뒤 퍼 바르며 작업하였다.

▶ **프랭컨탈러(Frankenthaler, Helen/미국/1928~2011)** 작은 낙원(캔버스에 아크릴/254×237.7cm/1964년) 캔버스 천에 물감을 부어 스며들게 하는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 ◎ 물들이기



### ◎ 회전시키기



### ◎ 뿌리기



▲ **폴록(Pollock, Jackson/미국/1912~1956)** 파란 막대기들, 넘버 11(캔버스에 유성 페인트/210×486cm/1952년) 물감을 흘리고 뿌리는 등의 행위로 작품을 표현하였다.



## 표현 활동

## 마블링 기법으로 표현한 우연의 형상

### ※ 표현 재료

대야, 마블링 물감, 나무젓가락, 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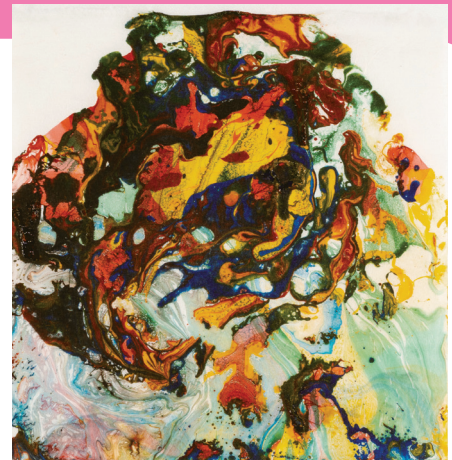
① 대야에 물을 담고 다양한 색상의 마블링 물감을 떨어뜨린다.



② 입으로 바람을 불거나 나무젓가락으로 휘저으며 자유롭게 형상을 만든다.



③ 물 위에 한지를 대어 찍는다.



▲ 이서우(학생 작품) 마음 가는 대로 (한지에 마블링 물감/21×21cm)



## 단원 점검하기

-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지 않은 상상화와 추상화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상상화와 추상화의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가?

상상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현실이다

- 피카소 -